

개막연설

기로에 선 한국 농업·농촌,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

이 정 환(농업·농촌의 길 2016 조직위원장)
leejh@gsnj.re.kr

기로에 선 한국 농업·농촌,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

매해 가을 열리는 펼 펼 뛰는 지식의 장터, 농업·농촌의 길 2016년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지금 한국 농업·농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. 그 선택이 단지 농업의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의미는 그만큼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.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지금까지 정부나 농민단체나 정치권이나 문제의 실상을 외면하거나 선택을 미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. 그런 절실함을 담아 농정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해, 서로 다른 주장이 격돌하고 치열한 논전을 벌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 합니다.

지금 한국 농업·농촌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시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된 각양각색의 농식품이 넘쳐나고 소비자는 그 중에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가격과 맛을 넘어 안전, 건강, 디자인과 스토리, 윤리에 이르고 있고, 농촌공간은 여가, 휴양, 교육의 장으로 더욱 더 중요해져, 농업·농촌의 다원적 기능, 문화적 기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
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농정은 연평균 3%의 성장과 수출 150억 달러, 식량 자급률 32%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 싸게 더 많이 생산하기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. 여기서 첫째로 우리나라 농정이 시장 경쟁력과 다원적 기능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? 를 두고 격돌하고 논전하려 합니다.

2 기로에 선 한국 농업·농촌,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

두 번째는 농업·농촌의 서비스 산업화 정책입니다. 농업의 GDP 비중은 2%수준 밖에 안 되지만 농업·농촌의 문화적 기능이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농업·농촌의 서비스 산업화는 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이른바 6차산업화 정책을 이대로 둘 것인가?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인가?를 두고 격돌하고 해법을 찾으려 합니다.

세 번째는 기업의 농업 참여문제입니다. 시장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데 농업·농촌의 인적 자원은 고갈되고 농업투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. 이런 현실에서 기업의 참여가 농업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? 아니면 가족농의 존립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뿐일까? 이제 과연 농정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? 치열한 논전을 통해 문제의 실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끝으로 쌀 공급과잉과 가격급락으로 쌀산업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이 같은 현실 앞에서 쌀 생산과잉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쌀 직불제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할 것 아닌가? 아니면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? 이것이 네 번째 논전입니다.

오늘의 격돌과 논전의 목적은 개막영상에서 보셨듯이 단순한 '주장의 경연'을 넘어 문제의 심연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촉구하는 큰 울림이 되려는 것입니다. 각 주제별로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두 분의 발표, 그리고 사회자의 멋진 진행으로 이어지는 논전을 통해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.

그리고 피날레, 그런 울림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농업에 뛰어든 세 명의 젊은이가 펼치는 패기와 열정의 스토리를 들은 후, 오늘 얻은 결론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하여 전해드리면서 2016년 농업·농촌의 길 **격돌과 논전**을 마치려 합니다.

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었다고 만족하시면서 돌아기시기 바라며, 오늘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 감사드립니다.